



<http://council.gangwon.kr>

강 원 의 정

월간 강원의회 제160호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발행처: 강원도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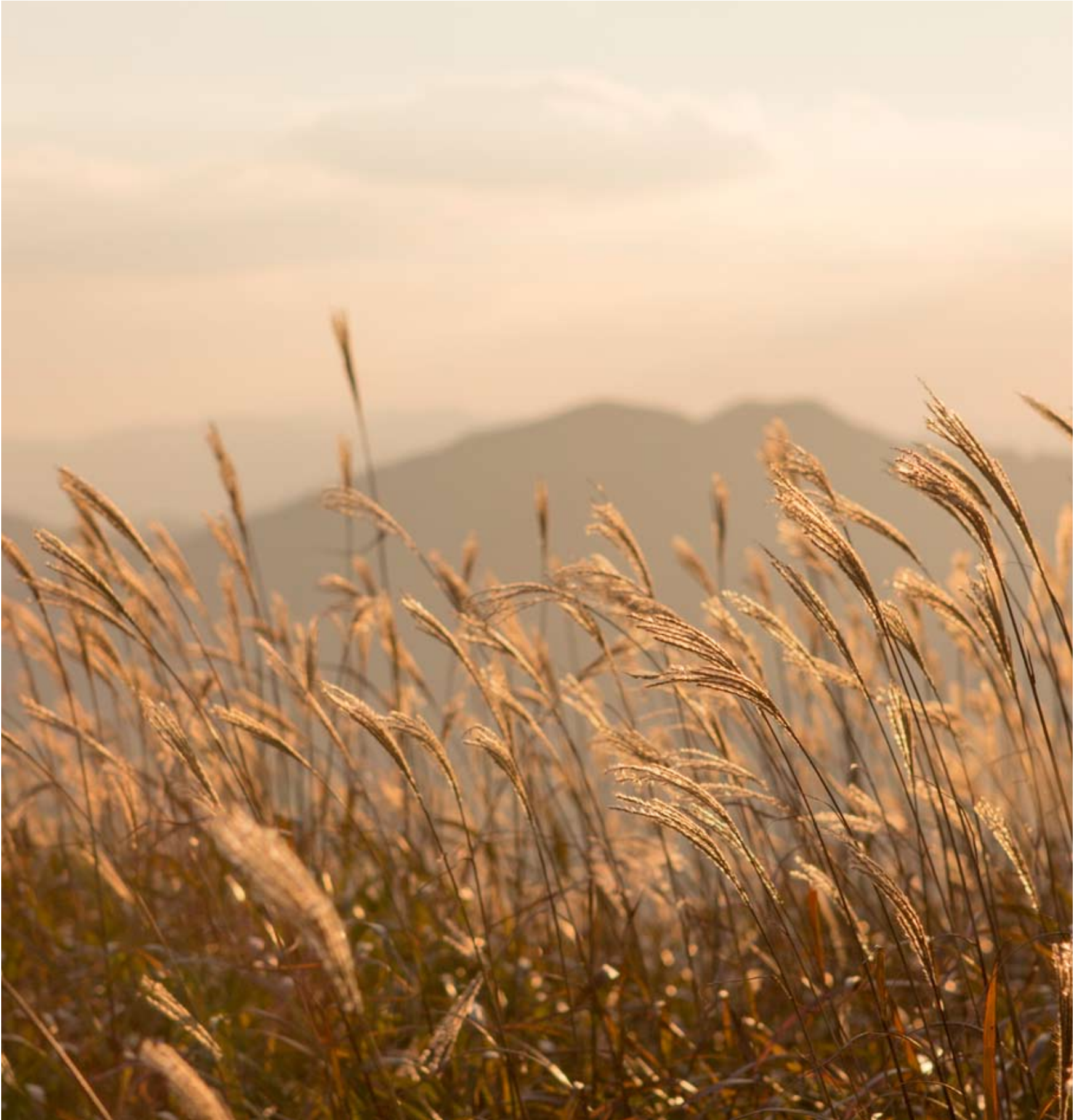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한금석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최성철

Gangwon Council Activities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49-5023 jj33@korea.kr

인쇄: 신용인쇄문화사



제160호 지면안내

- 생활속의 강원도의회 2~3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8면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9면
- 사회문화/농림수산위원회 10면
- 경제건설/교육위원회 11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면

- 5분 자유발언 13~14면
- 의원동정 15~16면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강원도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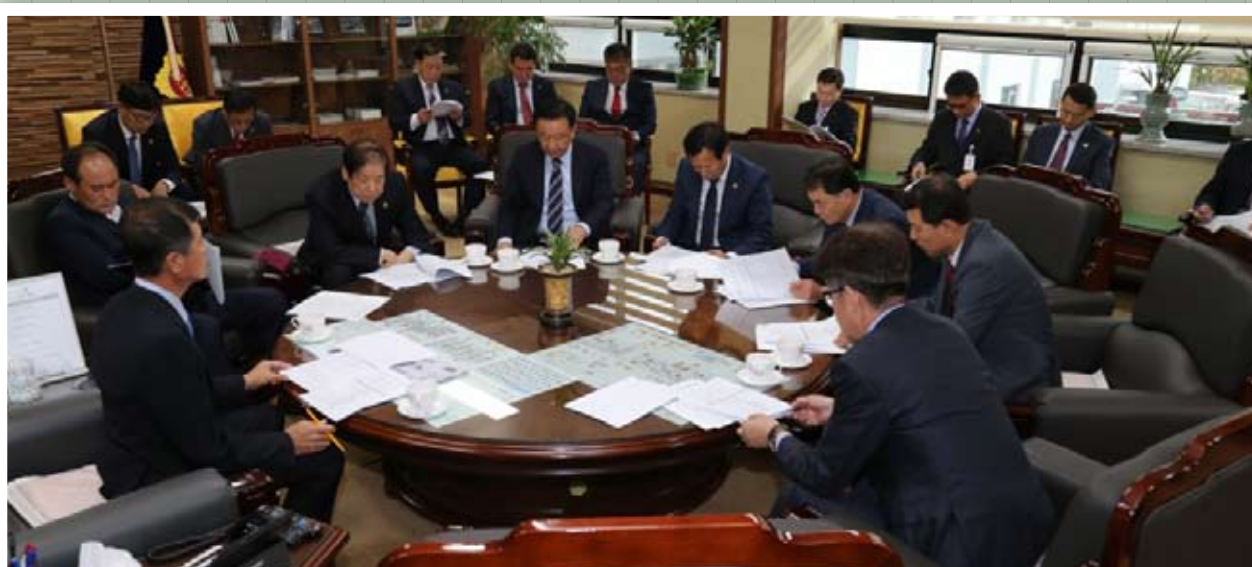
- 2018. 10. 7. 의정발전연구회 연찬회



- 2018. 10. 10. 강원랜드 설립 목적 이행 촉구 성명서발표(경제건설위원회)



- 2018. 10. 10. 의정대표협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강원도의회

- 2018. 10. 17. 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 2018. 10. 17.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 2018. 10. 17. 2018년 강원도의회 어린이도의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일차 (2018. 10. 24. (수), 제2차 본회의)



함 중 국 의원
교육위원회 / 황성2

Q 알펜시아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함.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못지않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 시기적으로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여건이 좋은 상황으로 보고있음.

Q 레고랜드 사업은 지난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 2021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데 그전까지 토지매각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나

가겠음. 멀리의 직접 투자가 서명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토지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음.

Q 기후 변화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가뭄 피해 등이 발생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정국장 이영일 : 농한기에 사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신규 저수지도 개발하고, 소규모 농경지에 둠벙, 소류지 등을 확대해 나가고 축사시설의 구조도 개선해 나가려고 함.

☞ 농업기술원장 김태석 : 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작목 재배치, 품종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Q 2017년 11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황성 태기산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하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녹색국장 김용국 :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도립공원지정 심의 신청이 늦어졌으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곧 지정 심의 신청을 하겠음

Q 강원도 청년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심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일임하고 나머지 연령대로 확대해서 수혜의 폭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데?

☞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안심공제는 15세 이상부터 연령 제한이 없고,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내

일채움공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 내년부터는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을 할 때 35세 이상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진공에서 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토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음.

Q 강원상품권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많은 비용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책은 없으신지?

☞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 내년에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전자·모바일 상품권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보고 있음.

Q 지사님께서 6·13 지방선거에서 목계리 탄약고 부지에 우량기업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황성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강원도와 원주시가 적극 동참해서 함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최문순 : 그곳에는 일부 대기업도 들어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필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 강원도가 원주시와 함께 이 문제를 잘 풀겠음.

Q 2022년 대학입시에서 정시 모집이 확대되는 대입제도 변경안이 발표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수시 위주 정책에서 정시 확대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 교육감 민병희 : 30% 이상 확대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음.



김 정 중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양양

Q 오색삭도사업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환경단체의 물리적인 힘과 이것을 눈치보는 환경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음. 이것을 해결하려면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녹색국장 김용국 : 도지사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감동도 많이 느끼고 안타까운 생각도 듭.

Q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민선6기 강원도의 3대 현안사업으로 도지사님이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임.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사업이 계획한 대로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녹색국장 김용국 : 꼭 그렇게 하겠음

Q 플라이강원 관련,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 신규면허 1단계 심사는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 항공기 보유계획 등 물적 요건 심사이고,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 3단계는 국토교통부 내의 안전·소비자·공항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7개 항공 담당 과가 참여하는 TF팀에서 종합 검토, 마지막 4단계는 항공사, 지자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안전·경영·법률·회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7인과 국토교통부 내 항공 분야 부서장 5인의 정부위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는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됨.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요건을 충족했고, 내년 3월까지 면허발급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동안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Q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플라이강원을 지원하는 것은 항공사 승인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강원도 관광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거라 보는건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함. 그래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림.

Q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판결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44번 국도를 폐쇄시켜서 산악관광지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 도지사 최문순 : 굉장히 좋은 생각같음. 지금 설악산 올라가는 코스가 동해안이 잘 조망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난다고 해도 경제성이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함.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음.

Q 동해북부선 진행하면서 지자체들이 역사 문제나 물류기지문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리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도지사 최문순 : 아마 대통령께서 착공식을 곧 하시게 될 것임. 동해북부선이 예타면제 등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되도록 하는 것인데 설계하는 데 3년 정도 걸림. 그 기간동안 역사나 노선, 역세권 등이 같이 논의 될 텐데 도에 이미 TF가 있기때문에 역세권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음.



이 병 현 의원
교육위원회 / 원주2

Q 행정안전부는 강원도개발공사의 2019년 5,144억 원 공사채 차환 승인과 연계해서 2018년 기준 부채비율을 현재 360%에서 250%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5,144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상환해야 되는데 전액 상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차환승인을 받기위해 협의해 왔음. 행안부의 공기업 관리 기준에 따라 부채비율을 250% 미만으로 유지해야만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비율을 단기간 내에 맞출 수 없어서 협의한 결과, 강원도가 추가 출자를 해서 일단 300% 미만 정도로만 유지하면

내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부분은 차환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임.

Q 원주시는 종축장 부지가 도 소유의 공기업 법인인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넘어가면 도립시설을 만들기 어렵고 앞으로도 도립시설을 유지할 수 없다며 출자를 반대했음. 이 과정에서 강원도 집행부는 원주시와 협의회가 안된 사안을 성급하게 의회로 떠넘겨 지역 간의 대결을 조장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오래 고민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차환 심사 승인일이 원래 다음 달 초였는데 안건이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주일 정도 연기를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음.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가피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Q 원주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넘기고 나면 해당 부지를 과연 원주시가 원하는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건지?

☞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 도에서 저와 예산과장이 이사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봄. 200억 이상의 투자계획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주에서 원하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Q 올해 안에 구 드림랜드의 민간매각이 성사된다면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음. 테마파크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원주시민들을 위하고 원주시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

Q 원주 도심 도유지인 종축장부지의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알펜시아는 저도 물려받은 것이고 당시 도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임. 모두의 공동 책임인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는데 원주시,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 일단은 서류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100% 우리 도의 통제하에 있어서 이익을 위해 원주시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Q 빗더미인 강원도개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수년째 반복된 돌려막기식의 공유재산 출연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 도지사 최문순 : 지금 다른 방법이 없음. 도민들의 세금을 알펜시아 빚을 갚는 데 넣을 수 없어서 현물출자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현물출자 중에서도 값이 맞는 것이 원주 종축장 부지 하나뿐임. 용도 없이 비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로 서류상 이전하는 것이고 도에서 가져와라 그러면 나중에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임.



반 대 연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강릉3

Q 전국 지방의료원중에 강원도만 유일하게 노사협상이나 자율교섭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음. 2015년도에 원장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취지로 지방의료원법을 개정했는데 핵심내용이 보수나 인사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이사회에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규정 개정 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정관에 삽입시켜서 기본급표가 정관에 들어가 있음. 정관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임. 위법이 되는 사안이고 지배·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대로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런 말씀을 드림

☞ 도지사 최문순 :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인 것 같고, 지금 도에서도 지배·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고치도록 하겠음

Q 자살률 감소를 위해 추진해 온 핵심적인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 지금까지 자살예방 대책으로 이통장을 중심으로 생명사랑 지킴이단을 운영하는데 한 4,000명 정도 됨. 앞으로 생명사랑지킴이단 인원을 좀 더 확대하고, 의용소방대나 반장까지 확대해서 사회관계망을 확인하는 데 더 역점을 둘 계획임.

Q 강원도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 자살예방센터에 들어오는 경력자들이 경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 급여도 올라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 기관에 쏟을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됨.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Q 강원FC 팀 성적도 어느 때보다 좋고 예산 지원도 120억, 115억으로 엄청 많고 그런데 관

중 수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 :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음. 2009년도 창단 첫 홈경기 때는 2만 명 정도가 강릉 홈구장을 가득 메운 적도 있었고 2부 리그 경기에서는 관중수가 현저하게 떨어짐. 일단 경기력이 좋으려면 선수들이 경기를 잘해야 하고 두 번째로 감독이 작전을 잘 짜야 하고 세 번째로 구단에서 경영을 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도민들이나 시민의 호응과 성원이 많으면 관중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음.

Q 강원도의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만근일수를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업에 있어서는 68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대책은?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 운수종사자는 내년 300명 정도 필요함. 올해 폴리텍대학에서 두 차례 교육을 운영해 60명 정도 확보했음. 내년에도 300명 정도를 더 교육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음.

Q 전국체전에 강원체고와 일반학교가 같이 출전한 것을 봤는데 체고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돈이 많이 수반되는 종목들 위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은지?

☞ 교육감 민병희 :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학업을 다 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님들이나 선수들이 아무래도 운동 시간 확보를 위해서 체육고등학교를 선호함. 일반학교에서 종목을 육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일차 (2018. 10. 25. (목), 제3차 본회의)

**정 유 선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2

Q 강원FC와 관련한 특별검사 결과 8개 부문에 15가지 정도의 비리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제부지사 정만호 : 우선 조사가 되면 조사결과가 본인과 구단에 통보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다, 아니다 하는 소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했음. 개중 사안에는 확실하게 불법행위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인데 법률적으로는 구상 또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내용을 확정하고자 하는 건이 몇 건 있음.

Q 강원FC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함. 징계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조태룡대표는 해임으로 가고 과징금은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은 환수하기 바람.

경제부지사 정만호 : 이번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하고 있음. 여러 가지 정관도 바꿀 예정이고 또 회계 운용 관행도 바꾸겠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 포함해서 모든 안이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음.

Q 한 해에 8만 명 가까운 15세~34세의 청년들이 강원도 지역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인구 유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 도내 일자리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임금도 전국 평균에서 한 40만 원 정도, 서울에 비하면 한 80만 원 정도 적기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Q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로 이전해 온 혁신도시가 강원도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고 채용이라든가 지역에 주어야 하는 것들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하실 생각이신지?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 이전 공공기관들이 그동안에 특별채용을 채용목표제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순수한 도내 취업생 포션이 줄어든 부분이 있음.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내에서 졸업했지만 외지 대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Q 2019년부터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

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지역소멸 우려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2017년도 강원도의 출생아수를 보면 8,958명으로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임. 강원도의 인구절벽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고 출생아 대비 사망자를 보면 1만 1,500명 정도가 됨. 강원도가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강원도 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정책을 만들게 되었음.

Q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정책들은 다 기혼부부의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음. 더 심각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 결국 비혼자들의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둘째는 주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Q 성인지정책과 전문가 영입이나 팀 독립 등의 방식으로 성인지업무 전문성을 강화해주시 바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 중요한 문제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연계하는 업무를 하려면 포괄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담당자를 최소한 6급 정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그 업무를 하면 최소한 3년간은 전보를 제한하는 대안을 계획중이며, 전문책임관 채용 문제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

**김 형 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동해2

Q 동해안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최근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망상이 193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약 40% 줄었는데, 누구보다도 경자청업무에 환하신 청장님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건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안 고시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되어서 이제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개발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2년 전에 부임해서와 보니 사유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땅을 먼저 확보한 분들을 개발사업자

로 지정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꿨음. 현재 경매에 들어가서 망상의 땅을 한 54만 5,000평 구매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Q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가 안 돼서 도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함. 지역민들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단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현재 망상이나 북평은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세금은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망상이나 북평도 사업개발 의지가 있다면 옥계처럼 도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 개발사업자가 이번 달 말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몇 백억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재무적 투자자들도 확보를 해서 투자계획이 신고가 돼서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계획이 되면 바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자금을 투입할 여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Q 10월 4일에 경자청이 한 주민설명회를 보

고 '여전히 경자청이 지역에 대한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음. 준비도 많이 소홀했던 것 같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태도도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우선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음.

Q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와는 다르게 숨 가쁘게 재기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의 8월 방북 이후에 그와 연결된 강원도의 대북교류나 경제교섭 사항들은 진척이 된 게 있는지?

행정부지사 송석두 : 개성공단에 대한 공식적인 해지의 문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음. 강원도에서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가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아직 풀려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 도이면서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천혜의 동해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도정정책에 바다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람

행정부지사 송석두 : 그렇게 하겠음.

3일차 (2018. 10. 26. (금), 제4차 본회의)



김수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화천

Q 국방개혁 2.0에 의한 사단급 병력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평화지역 주민의 불안감, 또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위수지역 해제에 대한 그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도지사 최문순 : 우선 위수지역 문제는 군과 얘기를 해서 군장병들이 너무 멀리까지 갈 수 없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해 볼 생각을 갖고 있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장병들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도록 사방거리라든가 천도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군장병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Q 얼마 전에 화천군에서 시행했던 K-POP공연 예산이 3억인데 지역경기의 활성화나 민

관군의 화합차원보다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막대한 도비를 투입한 것이 아닌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 K-POP공연은 평화지역 5개 군에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사를 끼우면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프로그램 규모 자체도 커짐. 화천군 행사에 3,000명 정도가 왔었음. 수도권에서도 많은 팬클럽 회원들이 왔기 때문에 화천지역을 알리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함.

Q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자유 왕래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올 이야기가 군비 축소인데 평화지역 주민들이 군인들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사업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평화지역발전본부는 단기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생성이 됐고, 그다음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그 지역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음.

Q 민통선을 복상하자마자 산림청에서 철원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등 강원도의 1만 4,482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버렸음. 이러한 규제 속에서 평화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규제가 되다 보니까 도 자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 관련된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연합해 나가고, 또 도내 지역구 의원님들과 강원도에 기반을 둔 의원님들 등 정치권과도 공조하는 방안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음.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정치권을 더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도록 하겠음.

Q 북한 쪽에도 내수면이용 개발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동해본부장 변성균 : 북한에 내수면자원이 상당히 많음. 특히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수면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동연구나 자원을 공동개발해서 평화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Q 화천, 양구, 정선 등은 군청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도 이제는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지?

교육감 민병희 : 물품이나 용역, 공사 수주비율을 따져보니까 아주 극히 미약함. 좀 더 큰 곳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심리 또는 지역의 업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함

Q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물품 등 발주시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행정국장 최수길 : 마땅한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가 많음. 가급적 그렇게 하겠음.



남상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춘천4

Q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 제4항에 보면 “전문업체란 전문성을 가지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라고 명기되어있고, 해당 업체 매출이 전부 강원도청에서 나왔는데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 당시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DAS 기술을 강원도의 ICT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4차 산업 시대에 ICT는 빅데이터라든, 클라우드 같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게 되었음. 또 DAS기술이 대형포털에서 무료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의 시장성·사업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Q 조직의 성격이 업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봄. 지방자치의 부르짖는 시대에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업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다른 지방정부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조직이 다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봄. 평화지역발전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만든 것임.

Q 강원도청의 조직편제는 업무의 중복, 부적합한 편제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임. 조직개편안 검토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반영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잘 살피도록 하겠음.

Q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시는 게 맞겠지요?

도지사 최문순 :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털들이 작은 기업들을 잡아먹는 것을 전형적인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선악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함. 조금 들여다봐 주시고, 이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함.

Q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춘천에 있는 IT기업들, 연합회 사람들을 여럿 만났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인정하는 게 이 기술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도지사 최문순 :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이제 보편화가 된 것임. 잊혀질 권리라는 콘셉트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특허권자하고 우리 도가 먼저 시작한 것임.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것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KT나 SKT 서버에 그게 남아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있는데 그것을 누가 동의했는지?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넘겨주는 것인데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꼭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함.

Q 앞서 이야기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최문순 : 자치행정국을 없앴 것은 전부 도지사 지원 조직이었기 때문이었고, 자치분권 역할에 관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직개편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음.

Q 기획조정실에 모든 업무가 집중이 되는 부분, 또는 글로벌투자통상국 같이 업무가 다른 국에 있는 부서업무와 중첩되는 부분, 또 잘못 미스매칭된 부분,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잡아주시기 바람.

도지사 최문순 : 그런 점들은 다시 면밀히 보도록 하겠음.


심 상 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동해1

Q 오늘 이해찬 대표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 도지사 최문순 :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SOC 요청을 많이 드렸음. 동해 북부선과 춘천~철원 고속도로, 삼척~영월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 SOC요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후활용을 전담할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과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음. 또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가지 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으로 건의를 드렸음.

Q 그러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유치에 대해서는 부탁하셨습니까?

☞ 도지사 최문순 : 그 부분은 정부의 공식

적인 절차가 있음. 행정 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 문체부, 기재부 이런 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식으로 가타부타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함.

Q 알펜시아 매각같이 큰 프로젝트를 어느 한 사람이 전걸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도지사 최문순 : 매각은 제가 책임지고 하는 것임. 가능하면 임기중에 할 생각이고, 그게 안 되면 다음 도지사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그것을 팔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가고 있음. 처음 인수인계 받았을 때 부채가 1조 1,000억이었는데 이제 8,000억으로 한 3,000억 갚았음. 그런 조건을 잘 갖춰서 살 사람의 구미에 맞게 해서 팔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야 조건이 좋게 팔 수 있음.

Q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전략을 바꾸라는 것임. 그렇게 혼자 하신다면 공무원이고 도의원이고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지?

☞ 도지사 최문순 : 매각 협상을 할 때는 서로 간에 비밀협약을 하는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 그분들은 주식시장에 올라 있는 사례가 많고 협상하는 것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부 비밀협약을 하고, 매각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 점은 M&A를 하는 데는 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이 끝난 후에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음.

Q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2013년 7월 9일에 했는데 평수가 140만 평이었는데 15만 평으로 125만 평이 축소됐습니다. 그곳에 130여 가구에 3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2012년도에 동해시에서 도로개설비가 예산 편성이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려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지 6년이 지났음. 앞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 있어서는, 재정적 부담, 형평성에 대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동해시와 우리 강원도가 협의를 해서 이런 데는 최소한 개설사업비라도 해서 피해보상을, 정말 100%는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해야 된다면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위로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강원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최문순 :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매주 이 자리에 오신 청장과 회의를 하고 있음. 좋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음.

Q 교육감님의 정책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혼란이 온다고 보는데?

☞ 교육감 민병희 :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인데 대학 진학에 관해서는 강원도가 어느 타 시도 못지않게 잘 진학하고 있음. 그 문제는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김 진 석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평창2

Q 서울올림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주체가 되고, 올림픽 잉여금으로 재단을 설립했고, 하물며 2012년 여수엑스포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엑스포 유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끼워 넣으려고 하시지는 않았는지?

☞ 도지사 최문순 : 우리 도는 여수엑스포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정부와 진행되는 것도 그런 방식임. 그런데 여수엑스포는

한시법이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처럼 영구적인 법으로 좀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Q 평창군에서는 평화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도가 하는 것도 통합해서 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그럼 올림픽 기념사업 재단에서 평화포럼을 하는 것인지, 평화포럼 재단을 다시 만드는 것인지?

☞ 도지사 최문순 : 기념사업 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선 그냥 하고, 이 기념사업 재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게됨. 하나는 경기장시설 유지·관리, 두 번째는 기념사업·레저시, 이 두 가지를 다 맡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다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도하고 군이 먼저 하고 나중에 거기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단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Q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 도지사 최문순 : 평창 군민들께서 1주년 기념사업을 가능한 평창에서 하자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우선 개·폐막식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아주 황량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는 강릉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념사업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콘

텐츠들이 들어서면 다시 평창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함.

Q 정선 중봉 알파인경기장은 도에서 복원과 존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셨는데 주민들의 뜻에 맞게끔 존치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도지사 최문순 : 같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약집을 보니까 3개 시군이 나와 있는데 시장·군수님들과 논의를 하셨는지?

☞ 도지사 최문순 : 행정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태임.

Q 평창군 변영회장이 지사님 면담 요청을 해도 안 만나주시고, 올림픽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자고 해도 왜 안 만나주시는지. 지사님이 바쁘시면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대신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움.

☞ 도지사 최문순 : 죄송하지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단을 만드는 것도 문체부, 기재부, 대한체육회, 청와대 다 합의가 돼야 하는 사항으로 제가 먼저 나서서 발표하거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음.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태경)는 10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제276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10.10.~10.26. 17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77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11.7.~12.14. 38일간)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나일주 의원이 발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

성결의안」을 특위 활동기간을 2020년 6월까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인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이어, 10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과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강 / 원 / 도 / 의 / 회 기획행정위원회

기 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는 10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시작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회계결산 승인안 6건, 건의안 1건 등을 심의하였다.

심사 결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건, 회계결산 승인안 6건에 대해서는 계획된안대로 원안가결하였다.

다만,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를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

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기획조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중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건”은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강원도개발공사 현물 출자의 건”은 삭제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아울러 점경지역 주민 및 군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점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사회문화위원회**

사 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10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북익산을 방문하여 강원도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조례안·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반태연·정유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기 위해 제3조와 제5조를 일부 수정가결하였다.

정유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경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조례인 만큼 관련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며 원안가결하였다.



강 / 원 / 도 / 의 / 회 **농림수산위원회**

농 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실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처리하고 현지시찰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은 청장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다. 본 조례를 통해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 약 670여 가구가 검사비용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횡성소재 에덴양봉원을 현장방문하여 치유농업과 6차산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경제건설위원회

경 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0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10월 12월에는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그리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의결하였다.

10월 15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동해

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였다.

10월 16일 원태경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과 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과 경제진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였다.



강 / 원 / 도 / 의 / 회 교육위원회

교 육위원회(위원장 이종주)는 10월 11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였다.

10월 12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전국체전 개회식 및 사전경기를 참관하였다.

10월 15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2017년도 강원도 교육청 기금결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

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

10월 16일 강원도교육청 학부모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현안을 협의하였고, 이어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도 독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교 및 중학구 설정안」,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다.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는 결산처분액 최소화 방

안,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예비비의 적정 편성 및 엄격한 집행,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효율적 운영, 지방세수입 징수 증대 노력 전개 등을 주문하였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심사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 관리 철저, 초과수납액 방지를 위한 세입예산 편성철저, 지방채 무관리 철저 등을 요청하였다.



5분 자유발언

탄광지역 현안대책 해결 촉구

제276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8. 10. 10.(수)



김 상 용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삼척1

- 국내 무연탄 수요처의 꾸준한 감소와 정부의 비축 구매 중지로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에 탄광지역 경제가 추락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무연탄 소비량의 약 52%를 비축하고 있어 이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임. 또한 고유가 등을 핑계로 수입 발전 연료를 사용해 온 동해화력 발전소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앞두고 있음
- 이렇게 무연탄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 무연탄비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연탄비축기금 조정권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함
 - ▶ 아울러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함
 - ① 정부 무연탄 비축량을 현재 90만t에서 150만t 추가 비축
 - ② 국내 생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 대폭 확대
 - ③ 동해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100% 즉각 사용
 - ④ 동해화력발전소를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서 제외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련 제언

제276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8. 10. 10.(수)



안 미 모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비례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 그러나 지난 5년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기업 중 89%가 정상영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공개 거부 의사로 매출액이나 직원 수 등의 기본 자료가 미비함
-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 비용 등의 기본 자료가 있어야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연 기업이 재무정보 공개를 거부했음이 사실인지, 심사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 ▶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의 실태 조사를 요구함

동해안 해안도로 조기완공 및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행과 관련

제276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8. 10. 10.(수)



위 호 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강릉4

- 동해안 해안도로 조기 완공 추진 제언
 - 동해안 해안도로는 1990년대부터 조성하여 현재까지도 일부 중요 군사시설 및 시군 경계지역은 연결되지 못한 상태임
 - 최근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이 다양해지고 남북 평화 기조에 따른 남북 관광 분야의 협력으로 더욱 큰 관광 변화가 예측되므로 해안도로 조기 완공을 통해 지역 간 이동편의 제공 및 지역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해야 함
- 동해안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행 추진 제언
 - 인근 지역으로의 연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주요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자가운전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유휴 도유지(구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하여

제276회 임시회 / 1차 본회의 / 2018. 10. 10.(수)



권 순 성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원주6

- 원주시 소재 유휴 도유지인 구 종축장 부지는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어왔고 지난 몇 년간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모두 무산되었음
- 최근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소를 목적으로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기려 하나, 비록 도유지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거치고 지역의 민심을 살피 추진해야 함이 마땅함
- 지난 구 드림랜드 부지 매각과 같이 원주시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도가 직접 구 종축장 부지에 도민 복지와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거나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하길 기대함
- ▶ 원주 소재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해 단지 현물출자나 아파트단지 건설이 아닌 원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함

설악 금강 국제관광공동특구, 동해관광특구를 통한 설악동 살리기 촉구

제276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8. 10. 26.(금)



김 준 섭 의원
교육위원회 / 속초2

-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내용 중 하나인 ‘동해관광 공동특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우선적이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도와 도의회, 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한 도지사 공약인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당한 연구를 토대로 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 동해관광 공동특구는 남북 강원도의 경제적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을 알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 갈라졌던 생활공동체를 잇는 의미있는 사업이므로 도가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위수지역 논란, 접경지역 대책 선행되어야

제276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8. 10. 26.(금)



조 형 연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인제

- 최근 남북 간 평화분위기 속에서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어 평화와 산업을 연계한 개발의 기대감이 생겨나는 분위기였으나 지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장병 위수지역 폐지 검토가 언급되어 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됨
- 접경지역은 그간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등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지역경제는 군에 상당히 의존해 온 실정임
-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위수지역 폐지와 국방개혁은 수 십년간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역을 피폐하게 할 것임
- 따라서 위수지역 문제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위수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임

강원랜드 제2대 주주인 강원도의 역할에 대하여

제276회 임시회 / 4차 본회의 / 2018. 10. 26.(금)



나 일 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정선2

- 강원랜드는 지난 10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도의회 성명에도 무반응을 일관하고 있으며, 1,600여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부르짖는 차별과 고용불안에 대한 호소 또한 외면하고 있음
- 강원랜드가 보유한 유보금이 3조원이 넘지만 폐광지역 개발과 경제회생에 노력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행태에 대해, 이제는 도가 제2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 도는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임원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주시길 바람



▲ **한금석 의장**은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5회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춘천 호반체육관)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박윤미 부의장**은 10월 4일 오전 10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집결지역 3개 광역 의회의장 공동성명 발표(국회 정론관) 참석, 10월 4일 오후 4시 교산 허균 서거 400주기 추모 전국행사(강릉아트센터)에 참석하였다.



▲ **함종국 부의장**은 9월 15일 오전 10시 횡성군 평생학습축제 개회식(문화체육공원) 참석, 9월 15일 오후 5시 제56회 강원예술제(춘천세종호텔)에 참석하였다.



▲ **원태경 운영위원장**은 9월 21일 오전 11시 제14회 함께하는 세상 화합과 나눔의 잔치(신체장애인복지회춘천시지부 앞마당) 참석,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에 참석하였다.



▲ **곽도영 기획행정위원장**은 9월 18일 오전 9시 반곡관설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김장봉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참석, 9월 22일 오후 7시 예술단 바우 마당극(강원감영 선화당)에 참석하였다.



▲ **심영섭 사회문화위원장**은 10월 1일 오후 1시 강남동민의 날 동민화합한마당 잔치(강남체육관) 참석, 10월 4일 오후 4시 교산 허균 400주기 추모전국대회(강릉아트센터)에 참석하였다.



▲ **박효동 농림수산위원장**은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이종주 교육위원장**은 9월 18일 오후 2시 제19회 춘천사회복지대회(춘천문화예술회관) 참석, 10월 2일 오전 11시 2018년 제3회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강원도교육청 소회의실)에 참석하였다.



▲ **권순성 도의원**은 9월 29일 오전 10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숲길 걷기 행사(봉화산 둘레길) 참석, 10월 4일 오전 10시 2018 천사데이(원주시 사회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 참석하였다.



▲ **김경식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김규호 도의원**은 9월 15일 오전 10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양구 해안중학교) 참석, 10월 4일 오전 9시 제5회 강원도협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회식(양구 종합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김병석 도의원**은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5회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춘천 호반체육관) 참석,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전심사에 참석하였다.



▲ **김상용 도의원**은 9월 20일 오전 10시 삼척시 농업리더 교육 및 한마음 대회(씨스포빌 리조트) 참석, 9월 21일 오후 12시 삼척중앙시장 동굴문어 축제(삼척중앙시장 문어거리)에 참석하였다.



▲ **김정중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김준섭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김진석 도의원**은 9월 18일 오전 11시 진부 오대산 적십자봉사대 발대식(진부문화센터 2층)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김혁동 도의원**은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5회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춘천 호반체육관)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김형원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27일 오후 2시 제11회 동해무릉천년학춤제(무릉계곡 무릉반석)에 참석하였다.



▲ **나일주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남상규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2시 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도의회 세미나실)에 참석하였다.



▲ **박병구 도의원**은 9월 28일 오전 10시 원주 지정면 체육대회(지정중학교) 참석,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에 참석하였다.



▲ **박상수** 도의원은 9월 20일 오전 10시 삼척시 농업리더 교육 및 한마음 대회(씨스포빌 리조트) 참석, 9월 21일 오후 1시 30분 삼척 이사부장군 위령제(육향산광장)에 참석하였다.



▲ **박인균**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전심사에 참석하였다.



▲ **반태연** 도의원은 10월 4일 오후 4시 교산 허균 400주기 추모전국대회(강릉아트센터) 참석, 10월 6일 오후 5시 제15회 오대산 문화축제 개막식(오대산사 특설무대)에 참석하였다.



▲ **신도현** 도의원은 9월 18일 오전 10시 행정동우회 체육대회(춘천송암스포츠타운) 참석, 9월 21일 오전 11시 9월중 서석면이장회의(서석면사무소)에 참석하였다.



▲ **신명순**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신영재**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심상화** 도의원은 10월 1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6차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강원연구원 중회의실 6층) 참석,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에 참석하였다.



▲ **심영미** 도의원은 9월 20일 오후 4시 원주장애인 인권영화제(원주 치악체육관) 참석, 10월 29일 오전 11시 제3회 장애인작업제활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생산물 홍보전시회 개최식(원주 치악체육관)에 참석하였다.



▲ **안미모** 도의원은 9월 20일 오전 7시 30분 제13회 강원연구원 월례아침포럼(강원연구원 대회의실),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5회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호반체육관)에 참석하였다.



▲ **위호진** 도의원은 9월 18일 오후 1시 제25회 강릉시 양성평등대회(강릉시청 2층 대강당)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윤석훈**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윤지영**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29일 오후 2시 30분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식(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 참석하였다.



▲ **이병헌**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위원회 학부모대표 간담회(교육위원회 회의실)에 참석하였다.



▲ **이상호** 도의원은 9월 18일 오후 2시 2018 태백취업박람회 “청년희망 내일찾기”(강원관광대학교 대운동장) 참석, 9월 21일 오전 9시 제1회 강원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정선종합경기장)에 참석하였다.



▲ **장덕수**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10분 2018년 강원도의회 어린이도의회(도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였다.



▲ **정수진**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정유선** 도의원은 9월 20일 오후 4시 원주장애인 인권영화제(원주 치악체육관) 참석, 10월 4일 오후 1시 30분 2018 영월군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영월군청 대회의실)에 참석하였다.



▲ **조성호** 도의원은 9월 21일 오후 3시 코스타포추나 대형 크루즈 속초항 입항 환영 및 출항행사(속초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조형연**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주대하** 도의원은 9월 14일 오후 6시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식(양양 국민체육센터) 참석,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전심사에 참석하였다.



▲ **최재연**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최종희** 도의원은 10월 4일 오후 4시 교산 허균 서거 400주기 추모 전국대회(강릉아트센터) 참석,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전심사에 참석하였다.



▲ **한창수** 도의원은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전심사 및 현지시찰 참석, 10월 17일 오후 1시 2018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화천 공설운동장)에 참석하였다.



▲ **허소영** 도의원은 9월 20일 오전 7시 30분 제13회 강원연구원 월례아침포럼(강원연구원 대회의실),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제5회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호반체육관)에 참석하였다.